

전주정원산업박람회 화려한 막 올라

개막식 개최... '나의 정원, 나의 도시, 우리의 내일' 주제 6일까지 정원 조성·전시 등 운영

138개 정원산업체와 국내외 유명 정원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 박람회가 전주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전주시는 2일 전주월드컵광장 내 박람회장에서 전주시장 등 정원작가, 참여업체, 시민정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개막식은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환영사 △축사 △시민작가정원 공모 시상식 △개막 퍼포먼스 △행사장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종호 총괄코디네이터와 황지해 특별초청작가, 조동범·박정아 초청작가에게 감사장이 수여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작가정원 공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올해의 시민정원작가 수상자는 △대상 정미소(송민정·백미랑·소재호) - 작품명:온리정원(櫻里庭園) △최우수상 그린베이스(김진희·신경희) - 작품명:수호의 문(守護의 門) △우수상 명스(송현호·최주혜·김가빈) - 작품명:Chattering(체터링)이다.

이번 정원 박람회는 '나의 정원, 나의 도시, 우리의 내일'이라는 주제 아



전주시는 2일 전주월드컵광장 내 박람회장에서 전주시장 등 정원작가, 참여업체, 시민정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을 가졌다.

래, 시민들에게 정원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정원을 통해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며 오는 6일까지 5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 박람회 현장에는 △황지해 특별초청작가의 '하고 싶은 말' △조동범 초청작가의 '오늘은 도토리, 내일은 숲' 등의 정원들이 조성

돼 박람회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올해 박람회에서는 산업체들이 참여해 만든 협업정원 10개소가 전시되며, 가족정원 20개소가 박람회 기간에 조성·전시돼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주가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맛있는 전주심야극장' 운영

3·5일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전주 찾은 관광객 대상

아간관광 특화도시 전주시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맞아 영화와 음식을 결합한 '오감만족' 심야극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주시는 3일과 5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전주관광호텔 꽃ים(팔달로 171)에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맞아 전주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맛있는 전주심야극장'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셰프가 전주 심미(十味)를 곁들여 조리한 상영작 관련 음식과 음료를 관광객이 직접 맛보고, 즐기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먼저 3일에는 백만 가게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엄마의 레시피를 찾아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 '3일의 휴가'가 상영된다.

이어 오는 5일에는 뉴욕 맨하탄 주방에서 자신만의 성공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가며 최고의 셰프를 꿈꾸는 내용을 담은 외국영화 '사람의 레시피'를 스크린 속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지난해 10월 첫 선을 보인 '맛있는 전주심야극장'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전주 아간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관광객은 티몬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에도 팔복예술공장에서 또 한 번 '맛있는 전주심야극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맛있는 전주심야극장에 참여해 전주의 고유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나누며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어린이날' 이색 스포츠 체험행사

초등학생 대상 승마·클라이밍 무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이색 스포츠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단은 5일 전주승마장과 완산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프로그램과 암벽 등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승마장은 말 먹이 주기와 말타기, 마방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승마'를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말타기는 전문 교관의 통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인공암벽장은 클라이밍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암벽 등반에 도전하고, 등반 후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단은 승마와 클라이밍의 저변 확대를 위해 평상시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어린이날을 비롯한 각종 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종목별 스포츠 방화 특강반을 운영하는 등 특성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며 "어린이날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가정의 달 기념 전주시 치매 가족과 '힐링 나들이'

전주시보건소, 임실치즈테마파크서 관람·체험 등 즐겨

전주시는 2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치매환자와 가족 4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기념 힐링 나들이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원 산책 △역사문화관 및 트리아트론 관람 △임실 치즈 및 1인 피자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겼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모처럼 봄의 싱그러움 공기를 마시며 휴식의 시간을 보냈며, 다른 가족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나들이를 함께한 한 치매환자 가족은 "이번 기회로 다른 치매가족을 처음 만나게 됐다"면서 "치매환자를 오래 돌봐온 가족들이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경험을 나누어주어 큰 힘을 얻어 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신서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힐링 나들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치매가족 간 정보교류를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보건소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가족교실'과 '차조모임', '돌봄부담분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치매안심센터(063-281-6293, 629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공공청사 보행약자 접근성 개선

전주시 완산구, 구청·12개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추진

전주시 완산권역의 공공청사가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된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완산구청과 12개 주민센터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의 노후화되고 미비한 장애인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설을 설치·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앞서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우선 사업지 선정 및 장애인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완산구청의 경우 민원실에 장애인용 민원접수대가 설치되고, 이와 함께 장애인주차구역 기둥기가 조정된다.

또한 동서화동·서산동·삼천3동 주

민센터의 주출입구에 유도블록이 설치되고, 완산동주민센터는 접근로 기울기 조정 및 점자안내판 설치 등 안내시설이 개선된다.

여기에 효자3동과 효자5동 주민센터의 경우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등 장애인 민원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될 예정이다.

완산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고 휠체어 이용자 등이 유도블록 등을 활용하여 청사 내로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은 물론, 점자안내판을 이용한 건물 내 정보 파악 및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 모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보충하고 개선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